

고흥군 현장 대응 빛났다...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로 인정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적극 건의로 정부 공감 이끌어... 농가 피해 복구·경영안정 총력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결정은 고흥군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부의 현장 공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에는 잎에 깨처럼 작은 병반이 나타나지만, 병세가 진행되면 벼알 표면에 암갈색 반점이 생기며 미질 저하와 수량 감소를 초래한다.

고흥군은 8월 초부터 사전 예찰과 초기 병해 지도를 강화했으나, 출수가 이후 기온 상승과 잦은 강우가 겹치면서 잠정 피해면적이 6,000ha로 확대됨에 따라 10월

초부터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대응전략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이미 수확을 완료한 농가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 대책에 포함된 피해 벼 전량 매입 방안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조사를 실시해 농약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벼 깨씨무늬병은 이상기후로 인한 대표적 병해로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군은 정부의 재



해 인정 결정에 따라 피해조사부터 복구비 지급까지 신속히 추진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계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구복규)은 오는 10월 25일(토) 화순군 일대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감성 프로그램 '화순에서의 특별한 하루'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하고, 화순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체험형 이벤트로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장과 개미산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하루

'화순에서의 특별한 하루' 참여자 모집

꽃강길에서 사랑을 전하는 낭만 프로포즈 이벤트

데이트를 즐기고, 마지막에는 꽃강길 음악분수 일원에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지원한다.

모집은 10월 14일(화)부터 10월 21일(화) 18:00까지로 화순군 외 지역에 거주하며 프로포즈를 계획 중인 커플 1팀을 모집한다. 신청은 별도의 폼 작성을 통한 온

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최종선정자는 10월 22일(수) 개별 안내 예정이다.

선정된 커플에게는 △프로포즈 현장 및 공간 연출 △영상·사진 촬영 △꽃다발 등 기념품 제공 △식사 및 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촬영된 영상은 참가자에게 제공되며, 재단 홍보 콘

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구종천 대표이사는 "사랑이 머무는 여행지, 화순의 매력을 감성적으로 알리는 프로그램으로서 참가 커플에게는 평생 기억될 하루가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제77주년 여순10·19사건 추모전야제 개최

순천시와 (재)순천문화재단은 오는 18일 순천 여순10·19평화공원(순천시 역전길 127) 일대에서 '제77주년 여순10·19사건 추모전야제'를 개최한다.



77주년을 되새기며,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사회가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그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오후 3시부터 평화공원 입구 일대에서 '평화문화한마당'이 시작되며, 오후 6시부터 전야제 본행사가 진행된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과 유족들의 인사에 이어 ▲전통무용 '매주 팔아리랑'(박소산) ▲'1948년, 시간을 건너는 편지쓰기' 공모전 시상식 및 낭독회 ▲국악인 김나영 ▲밴드 등결 ▲퓨전밴드 김반장과 친구들의 추모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원디시티의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김반장이 여순사건의 의미를 담은 창작곡을 발표할 예정이며 본행사의 피날레는 시민

과 유족들이 함께 초를 밝히며 현화(火)하는 '캔들 퍼포먼스'로 장식될 예정이다.

본행사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에서는 지난 9월 심사를 거쳐 선정된 '1948년, 시간을 건너는 편지쓰기' 공모전 수상자 20명에게 상상이 이루어진다. 특히 대상 수상작 '순천에 묻힌 이름 없는 삶에게' (김수 작)는 전야제 현장에서 낭독돼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순천/정영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의 날 캠페인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박인덕)는 지난 10월 14일 '영양의 날'을 맞아 구례 청천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꼭 먹어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아침식사를 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집중력 저하, 피로감, 학습 능력 감소 등의 문제를 쉽게 설명하고, 간단하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아이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팁도 함께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례/한정호 기자



무안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출범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4일,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6기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6기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업 운영 방안 협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제6기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박상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부위원장에는 박성남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선출되었으며, 사회보장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총 15명의 위원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산 군수는 "제6기 대표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무안군 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함평군, 후계·여성농업인과 농정 간담회 성료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미래 농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지역 농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함평군은 지난 15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함평군연합회(이하 한후농)와 (사)한국여성농업인함평군연합회(이하 한여농)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반영해 군 농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신재식 한후농 회장, 이은정 한여농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기능성 농산물 생산 확대 ▲저탄소 농업 활성화 ▲농가 교육 및 역량 강화 ▲농업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군에 전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